

## NINE STEP 4 강

### ♫ 316장

#### 방황하는 사마리아 여인

말씀 / 요한복음 4:1-26

요절 / 요한복음 4: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건 :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랑과 영혼의 대화를 나누셨다

†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은? - 영생의 샘물 예수님

† 참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을 찾자 -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

### I. 영생의 샘물 (1-15)

1.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1,2)? 이를 아신 예수님은 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까(3)?

☞ 예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으시고 세례를 베푸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공동번역). 그런데 이 세례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었다. 하여튼 바리새인들은 이를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당시 상황은 선구자 세례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사역초기에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하셨다.

2. 예수님은 어디로 통과하셔야 하셨습니까(4)?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왕하17:1-24)?

☞ 예수님께서서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He needed to go through Samaria.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밖에 걸리지 않지만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자 해변 길로 가거나, 요단강을 건너 베뢰아 지방으로 우회하여 갔다. 이 길은 6일이나 걸려 시간이 두 배로 걸리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않고자 이렇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민족적 감정의 장벽을 뚫고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자 하셨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화평의 주님. - 민족 간의 장벽을 허신다.

엡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째, 세상의 구주. 세상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주신다.

요4:42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앎이니라 하였더라

☞ 사마리아에 대하여 알아보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통치 때까지 유지되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통치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다(왕상 12장, BC 932년경). 사마리아는 오프리 통치 때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위에 성을 건축한 뒤 주인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로 일컬었던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다(왕상17:24).

BC 722년경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통치 때 앗수르왕 살만에셀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였다(왕하17:1~6). 앗수르는 혼혈정책으로 바벨론 등지에서 사람을 사마리아 성읍에 이주시켜 살게 하였다.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잃고 그들과 결혼하여 순수성을 잃고 이방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다(왕하17:24~33).

BC 586년경 남유다는 시드기야 통치 때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하였다(왕하25장).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정책에도 선민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투쟁하여 이를 극복하고 순수성을 지켰다. 그래서 유다사람들은 강한 선민의식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우월감과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BC 433년경 페르시아 왕의 배려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 건축 시 유다민족이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거부한 이후(스4장)로 두 민족 간의 감정을 극도로 악화되어 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무시하고 상종치 않았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400년 동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적대관계가 지속되어왔다. 당시 “You are samaritan!”이 최악의 욕이었다. 어떤 바리새인은 부활 때에도 사마리아인들을 부활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다.

3. 예수님은 어떤 역사적인 곳에 이르셨습니까(5,6a)? 예수님의 육신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6b)?

☞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세겜-이 가깝고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다.

수가(Sychar)

(1) 세겜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 촌락. 뜻은 ‘마지막’

(2) 사마리아도의 한 동리로서 야곱의 우물이 있다(요4:5-6).

(3) 야곱과 조상의 분묘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 가시다가 그 우물에 물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생수의 원리를 설명하고 전도한 곳(요4:39-41).

## 우물

야곱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신화적 존재요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다. 야곱은 평생 한 여인을 사랑한 사람이다. 이 우물은 야곱과 라헬이 처음 만난 곳이다(창29장). 야곱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원치 않게 네 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첫사랑인 라헬 한 사람을 일평생 사랑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후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아들 요셉에게 못 다한 사랑을 쏟았다. 야곱은 라헬을 잊지 않기 위해 그녀를 위해 30m가 넘는 우물을 파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한 야곱의 우물’이라 명명한 후 아들 요셉에게 주었다.

☞ 때는 중동의 피약별이 내리쬐는 정오, 예수님은 먼 여행길로 인해 지쳐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 앉으셨다.

†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첫째, 유대에서 수가까지 거리는 120리(36Km)이다. 예수님은 샌들을 신고서 뜨거운 사막을 120리나 걸어오셨다.

둘째, 때는 제 육시, 정오 12시. 요한복음의 시간은 유대시간을 적용하였다. 유대시간은 해 질 때와 해 뜰 때를 12시로 정하였다. 그래서 본문의 6시는 우리나라로 하면 12시이다. 중동의 정오의 피약별은 40℃ 이상이며 시에스터(Siester)라고 해서 12시부터 2시까지 일하지 않고 낮잠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다. 군대에서도 혹서기가 되면 일과표를 조정해서 12시부터 2시까지 야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피곤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4. 이때 누가 물을 길러 왔습니까(7a)? 예수님과 이 여인사이에는 어떤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무슨 도움을 요청했습니까(7b)?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 중동의 피약별이 내리쬐는 정오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여인들은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길러 왔다. 그러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모두들 자고 있을 시간에 물동이 이고 물길러 우물가에 왔다. 이는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여인임을 말해준다. 그녀가 무더운 시간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야곱의 우물물에 왔다는 것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목마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있는 장벽에 대하여 알아보자

구 분	예 수 님	사마리아 여인
민족적 인간적 영 적	유 대 인 남 자 하나님의 아들	멀시받는 사마리아인 여 자 죄 인

여인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였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사마리아인이요, 여자요, 죄인이다.

만약 우리가 이 여인을 보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석가는 “여인이여, 과거를 잊으시오. 그리고 해탈하십시오”라고 말했을 것이다.

공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하였거늘...”하며 삼강오륜에 대한 강의를 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여자여, 네 자신을 알라”고 했을 것이다.

☞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하시며 아쉬운 목소리로 다가가셨다.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Will you give me a drink?), 물을 좀 달라(Give me a drink)

이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져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죄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부탁하셨다.

☞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한 영혼을 돕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이 충만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고독하고 불쌍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온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여인의 영적목마름을 아시고 도와주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자신의 피곤함도 잊으시고 여인에게 다가간다.

둘째, 먼저 대화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녀를 돕고자 겸손하게 낮아져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자 먼저 말문을 여셨다. 이는 하나님의 선수(先手)적인 사랑(God's initiative)이다.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초청(Jesus' wonderful initiative)이다.

창3: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사1:18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59:11 우리가 곱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요일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일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계3:20 볼지어다 내게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5. 예수님께 왜 반발했습니까(9)?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무엇을 알기 원하셨으며 그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습니까(10)?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아셨습니까?

☞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고 독소는 말투로 예수님께 반발하였다. 여인은 예수님의 초청과 사랑을 내면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민족적 감정과 죄문제로 꼬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반발하였다. 이때 우리라면 호의를 거절하고 텅기는 여인으로 인해 기분상해서 대화를 중단하고 우물가를 떠나기 쉽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셨다.

☞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표준새번역)

예수님은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의 근원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여인의 관심을 하나님의 선물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 구원

롬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선물)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 예수님

렘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

렘17:13 ...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시36:9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고자 하셨다.

생수(living water) : 살아있는 물, 생명을 주는 물. 바로 예수님 자신.

6. 여인은 생수를 무엇으로 오해했습니까(11)? 예수님을 왜 야곱과 비교했습니까(12)?

☞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야곱의 우물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두레박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생수를 주실수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여인의 육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존경하는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하였다. 야곱은 사마리아인들의 존경을 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물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과 가축을 먹여왔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상형이 야곱인 것을 알 수 있다.

7.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근본적으로 어떻게릅니까(13,14)?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참조 요6:35, 7:38,39)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자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15)?

☞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표준새번역)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된다. 둘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 야곱의 우물물에 대하여

야곱의 우물물은 목마름을 채우기위해 취하는 세상 것들을 말한다. 하지만 이 야곱의 우물물은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지는 모르나 또 다시 목마르게 된다. 다시 다른 것을 얻기위해 지치고 피곤한 생활을 해야한다.

ex) 명예, 권력, 부, 사랑, 사람들의 인정 등.

† 나는 지금 어떤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고 있나 생각해 보자.

† 왜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수 밖에 없는가?

첫째,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 생령이 된 것과 같이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물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 야곱의 우물물은 육신만 만족시켜 주기에 이것만 취할 때는 영혼이 곤고함을 느낀다.

창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어거스틴의 고백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된 이 영혼은 당신의 품 속에 있을때까지 평안이 없나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암8:11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니리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셋째, 인간이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렘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렘2:19b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이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 예수님이 주시는 물: 말씀.성령.

6: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  
 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7: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계3:20 불지어다 내게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22:1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  
 터 나서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다. 매일 정오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길러 오는 생활에 지쳐 있  
 었다. 매일 계속되는 생활에 대한 권태감과 일상적인 생활은 그녀를 더욱 갈증나게 하였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  
 자는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  
 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겼다.

## II. 예배 (16-26)

1. 예수님은 여자에게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셨을까요(16)? 여자는 왜 남편이 없다고 대답  
 했습니까(17)?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셨습니까(17b,18)? 왜 이렇게 남  
 편 문제를 드러내셨을까요?

☞ 여인이 영적인 것을 조금 깨닫고 영생수를 마시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여인의 근본문제는 목마름 문제이다. 목마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  
 생수를 마셔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녀에게 있는 죄문제를 드러내어 해결함 받아야만  
 한다.

☞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질문에 “남편이 없나이다”하고 시치미를 떼었다.

☞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아시고 그녀가 남편 다섯이 있었던 것과 지금도 어느 남자와  
 동거하고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근본문제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임을 아셨다.

☞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문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런 문제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를 덮어두고 인간적인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문제를 드러내어 치료하여  
 주길 원하신다. 죄에서 나옴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 숨김없이 드러낼 때 예수  
 님께서 죄에서 깨끗케 하신다. 그리고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줄 영생수를 주시고자 하신다.

‘드러낸다’ :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나옴받고자 하는 소원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것.

요일1:8 만일 우리가 죄 없다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히4:13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2. 여자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게 되었습니까(19)?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까(20)?

☞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였다. 즉 백성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지자로 인정하였다. 이는 죄로인해 가리워진 여인의 영적 소원과 경배의 대상을 찾고있는 영적 갈망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 여인은 예배문제에 대해서, 특히 장소문제에 대해 알고자 하였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도록 역사를 조작하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고 하였다. 또한 모세가 출애굽 후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산도 예발 산(신 27:4)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고 하였다.

신27: 4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예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 거짓예배에 대하여

첫째, 자기가 원하는 것만 택하고 원치 않는 것을 삭제한다. 사마리아인이 모세5경만 택하고 역사를 조작한 것.

둘째, 무지한 예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개인의 목적을 추구하기위해 보는 예배

셋째, 미신적인 예배. 예배를 영적갈망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않고 저주를 받을 것같은 공포심에서 해방되기위해 예배드리는 것.

3. 예수님은 여자에게 예배의 때, 장소, 대상, 자세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21-24)?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떤 점에서 소망이 됩니까?

☞ 예수님은 여인에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때, 대상, 자세가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다.

예배의 장소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21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구약의 물질적이고 의식적인 제사제도는 폐지되고 이제는 영적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막15:38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히10:18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10:19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यो 휘장은 곧 저의 옥체니라

예배의 대상

하나님은 영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자세

예배는 신령(in spirit)과 진정(진리, in truth)로 예배드려야 한다.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 참된 예배에 대하여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드려야 한다.

요1:5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 빛

요일4: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사랑

마5:9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 아버지

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 영적인 분  
둘째,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롬1:9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 심령으로

사29:13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셋째,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요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넷째, 생활전체가 예배가 되어야한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믿음으로 생활속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롬12:1 ...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4. 여자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또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임을 밝히셨습니까(26)?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 여인은 경배할 대상,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 우리 인생들은 경배의 대상, 메시아를 찾고

.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메시아, 삶의 고뇌와 방황가운데서 구원하는 메시아, 타는듯한 삶의 갈증을 해결해 줄 메시아, 자신의 전부를 쏟아 섬길 메시아를 찾습니다.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하실 것을 기대하였다.

☞ 예수님은 “내가 그로라” 말씀하셔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다.

☞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참 남편이 되신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 영혼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가 되시며 참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인격적으로 죄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므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참만족 얻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해 갈증하며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사 영생의 샘물을 허락하신다. 이 여인은 참 경배의 대상을 찾았고 참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육시쯤 되었더라
  -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 18절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남이니라
  -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 공동번역
- 1절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으시고 세례를 베푸신다는 소문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 갔다.
  - 2절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다.)
  - 3절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래아로 가기로 하셨는데

- 4 그 곳으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였다.
- 5절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 6절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와 있었다.
- 7절 마침 그 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 8절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 가고 없었다.
- 9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 10절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오히려 내가 너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자
- 11절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다 선생님께서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12절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 13절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 올라 영원히 살게할 것이다" 하셨다.
- 15절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 16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 오라고 하셨다.
- 17절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 18절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 19절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 20절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 21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 22절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 23절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 24절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 25절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시겠지요" 하자
- 26절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표준새번역

1 요한보다 예수께서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시는 사람이 많다는 소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2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 3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기로 하셨다.
- 4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 5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 6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정오쯤이었다.
- 7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 10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 11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 12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 1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 15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 16 예수께서 그 여자더러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하시니
- 17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 18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제대로 말하였다."
- 19 여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 20 우리 조상은 이 산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 2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 22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 23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 24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 25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야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하니
- 26 예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하고 말씀하셨다.

NIV

- 1절 The Pharisees heard that Jesus was gaining and baptizing more disciples than John,  
 2절 although in fact it was not Jesus who baptized, but his disciples.

3 When the Lord learned of this, he left Judea and went back once more to Galilee.

4절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5절 So he came to a town in Samaria called Sychar, near the plot of ground Jacob had given to his son Joseph.

6절 Jacob's well was there, and Jesus, tired as he was from the journey, sat down by the well.

It was about the sixth hour.

7절 When a Samaritan woman came to draw water, Jesus said to her, "Will you give me a drink?"

8절 (His disciples had gone into the town to buy food.)

9절 The Samaritan woman said to him, "You are a Jew and I am a Samaritan woman.

How can you ask me for a drink?" (For Jews do not associate with Samaritans.)

10절 Jesus answered her,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asks you for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11절 "Sir," the woman said, "you have nothing to draw with and the well is deep. Where can you get this living water?"

12절 Are you greater than our father Jacob, who gave us the well and drank from it himself, as did also his sons and his flocks and herds?"

13절 Jesus answered,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14절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15절 The woman said to him, "Sir, give me this water so that I won't get thirsty and have to keep coming here to draw water."

16절 He told her,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back."

17절 "I have no husband," she replied. Jesus said to her, "You are right when you say you have no husband.

18절 The fact is, you have had five husbands, and the man you now have is not your husband. What you have just said is quite true."

19절 "Sir," the woman said, "I can see that you are a prophet.

20절 Our fathers worshiped on this mountain, but you Jews claim that the place where we must worship is in Jerusalem."

21절 Jesus declared, "Believe me, woman, a time is coming when you will worship the Father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22절 You Samaritans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we worship what we do know, for salvation is from the Jews.

23절 Yet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y are the kind of worshipers the Father seeks.

24절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25절 The woman said, "I know that Messiah" (called Christ) "is coming. When he comes, he will explain everything to us."

26절 Then Jesus declared, "I who speak to you am he."

NKJ

1절 Therefore, when the Lord knew that the Pharisees had heard that Jesus made and baptized more disciples than John

2절 (though Jesus Himself did not baptize, but His disciples),

3절 He left Judea and departed again to Galilee.

4 But He needed to go through Samaria.

5절 So He came to a city of Samaria which is called Sychar, near the plot of ground that Jacob gave to his son Joseph.

6절 Now Jacob's well was there. Jesus therefore, being wearied from [His] journey, sat thus by the well. It was about the sixth hour.

7절 A woman of Samaria came to draw water. Jesus said to her, "Give Me a drink."

8절 For His disciples had gone away into the city to buy food.

9절 Then the woman of Samaria said to Him, "How is it that You, being a Jew, ask a drink from me, a Samaritan woman?" For Jews have no dealings with Samaritans.

10절 Jesus answered and said to her,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who says to you, 'Give Me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11절 The woman said to Him, "Sir, You have nothing to draw with, and the well is deep. Where then do You get that living water?"

12절 "Are You greater than our father Jacob, who gave us the well, and drank from it himself, as well as his sons and his livestock?"

13절 Jesus answered and said to her, "Whoever drinks of this water will thirst again,

14절 "but whoever drinks of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will never thirst. But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fountain of water springing up into everlasting life."

15절 The woman said to Him, "Sir, give me this water, that I may not thirst, nor come here to draw."

16절 Jesus said to her,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here."

17절 The woman answered and said, "I have no husband." Jesus said to her, "You have well said, 'I have no husband,'

18절 "for you have had five husbands, and the one whom you now have is not your husband; in that you spoke truly."

19절 The woman said to Him, "Sir, I perceive that You are a prophet.

20절 "Our fathers worshiped on this mountain, and you [Jews] say that in Jerusalem is the place where one ought to worship."

21절 Jesus said to her, "Woman, believe Me, the hour is coming when you will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worship the Father.

22절 "You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we know what we worship, for salvation is of the Jews.

23절 "But the hour is coming, and now is,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 Father is seeking such to worship Him.

24절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25절 The woman said to Him, "I know that Messiah is coming" (who is called Christ). "When He comes, He will tell us all things."

26절 Jesus said to her, "I who speak to you am [He.]"

NRS

1절 Now when Jesus learned that the Pharisees had heard, "Jesus is making and baptizing more disciples than John"

2절 -- although it was not Jesus himself but his disciples who baptized --

3절 he left Judea and started back to Galilee.

4절 But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5 So he came to a Samaritan city called Sychar, near the plot of ground that Jacob had given to his son Joseph.

6절 Jacob's well was there, and Jesus, tired out by his journey, was sitting by the well. It was about noon.

7절 A Samaritan woman came to draw water, and Jesus said to her, "Give me a drink."

8절 (His disciples had gone to the city to buy food.)

9절 The Samaritan woman said to him, "How is it that you, a Jew, ask a drink of me, a woman of Samaria?" (Jews do not share things in common with Samaritans.)

10절 Jesus answered her,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is saying to you, 'Give me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11절 The woman said to him, "Sir, you have no bucket, and the well is deep. Where do you get that living water?"

12절 Are you greater than our ancestor Jacob, who gave us the well, and with his sons and his flocks drank from it?"

13절 Jesus said to her, "Everyone who drinks of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14절 but those who drink of the water that I will give them will never be thirsty. The water that I will give will become in them a spring of water gushing up to eternal life."

15절 The woman said to him, "Sir, give me this water, so that I may never be thirsty or have to keep coming here to draw water."

16절 Jesus said to her,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back."

17절 The woman answered him, "I have no husband." Jesus said to her, "You are right in saying, 'I have no husband';

18절 for you have had five husbands, and the one you have now is not your husband. What you have said is true!"

19절 The woman said to him, "Sir, I see that you are a prophet.

20절 Our ancestors worshiped on this mountain, but you say that the place where people must worship is in Jerusalem."

21절 Jesus said to her, "Woman, believe me, the hour is coming when you will worship the Father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22절 You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we worship what we know, for salvation is from the Jews.

23절 But the hour is coming, and is now here,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 Father seeks such as these to worship him.

24절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25절 The woman said to him, "I know that Messiah is coming" (who is called Christ). "When he comes, he will proclaim all things to us."

26절 Jesus said to her, "I am he, the one who is speaking to you."



